

SK 텔레콤, 2020 년 3 분기 실적 발표

- 매출 4 조 7,308 억 원, 영업이익 3,615 억 원, 순이익 3,957 억 원
- 미디어, 보안, 커머스 3 대 New Biz. 사업 매출 · 영업이익 각각 19% · 40% ↑
- "견고한 5G 리더십 및 5 대 사업 동력으로 New ICT 기업 가치 입증할 것"

※ 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

※ 컨퍼런스콜은 금일 16 시 30 분 예정이며,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.

(국문) http://cc.onoffjoin.com/webcast/skt/skt2020Q3_kr.php

(영문) http://cc.onoffjoin.com/webcast/skt/skt2020Q3_en.php

[2020. 11. 5.]

SK 텔레콤(대표이사 박정호, www.sktelecom.com)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 년 3 분기 매출 4 조 7,308 억 원, 영업이익 3,615 억 원, 순이익 3,957 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5 일 밝혔다.

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.7%, 19.7% 증가했다. 무선 사업 실적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디어, 보안, 커머스 등 New Biz. 사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. 당기순이익은 SK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44.2% 증가했다.

■ New Biz. 사업 모두 두 자릿수 성장... 포스트 코로나시대 성장동력 확보 박차

SKT New Biz. 사업인 미디어, 보안, 커머스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내며 18.9% 증가한 1 조 5,267 억 원을 기록했다.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.3% 상승하여 역대 최초로 1 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감 있는 성장세를 이어 나가며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를 보여줬다.

미디어 사업은 IPTV 사업 성장 및 티브로드 합병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0.3% 증가한 9,668 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. SK 브로드밴드는 최신 영화, 해외 드라마 및

키즈 콘텐츠 강화와 모바일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편으로 IPTV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12.9 만 명 증가하며 9 월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850 만 명 시대를 열었다.

보안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5.5% 증가한 3,533 억원을 기록했다. ADT 캡스와 SK 인포섹은 AI 얼굴인식 온도측정 및 워크스루(Walk-Through)형 출입인증 솔루션 등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비대면 특화 서비스를 비롯해 클라우드 · 융합 보안 등 최신 ICT 기반 보안 솔루션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성장 보폭을 넓혀갈 계획이다.

11 번가와 SK 스토아로 이루어진 커머스 사업 매출은 전년비 18.7% 성장한 2,066 억 원을 기록했다. SK 스토아는 전년 대비 매출이 47.7% 성장하면서 T 커머스 1 위로 도약했다. 11 번가는 라이브 커머스 강화, 당일배송 장보기 서비스 확대 등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동시에 기록했다.

SKT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앱 마켓 '원스토어'는 입점 앱 증가와 이용자 기반 확대로 기업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. 원스토어는 내년을 목표로 IPO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.

아울러 SKT 는 국내 1 위 모빌리티 플랫폼 'T 맵'을 기반으로 연내 '모빌리티 전문 기업' 설립하며 5 번째 핵심사업을 추진한다. 전문 기업은 'T 맵' 기반 주차·광고 등 플랫폼 사업, 다양한 운송 수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'올인원 MaaS(Mobility as a service)' 등에 집중하고, 우버 등 전략적 파트너와 택시 호출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.

■ 무선 매출 전년비 1.0% 증가... 차별화된 고객 경험 혁신으로 성장세 본격화

무선 매출은 전년 대비 1.0% 증가한 2 조 9,406 억 원을 기록했다. 2G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코로나 19 장기화 영향이 있었으나 5G 품질 고도화와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로 9 월 말 기준 426 만 명 5G 가입자를 확보하고, 국내 3 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 위에 오르는 등 5G 시대에도 고객이 신뢰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.

특히 SKT 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. '바로도착' 등 비대면 중심 O2O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, '보이는 컬러링' 컨셉의 구독형 서비스 'V 컬러링'을 출시하고 ICT 복합체험공간 'T 팩토리'를 오픈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1 위 사업자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.

윤풍영 SKT 코퍼레이트 1 센터장은 "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"며 "5G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5 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New ICT 기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것"이라고 밝혔다.